보험사기 전력자 블랙리스트 작성

보험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금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기 전력자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 가담자까지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 모집인은 등록을 취소해 퇴출시키고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장기보험 등 보험 종목별로 세분화해 사기 혐의자를 골라내기로 했다.

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만2천801명(사기금액 1천46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급증했다"며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마케팅 광주신세계백화점이 8일 저녁 점등한 크리스마스 트리. 화사한 조명으로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실질금리 반영 주택대출 나온다

금융업계, CD연동 방식 개선… 내년초 도입

내년 초에 은행들의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선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CD금리나 정기예금, 금융채 등의 만기가 같은 상품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바스켓 금리'의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평균 조달금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삼아 금리 위험에 노출되고, 대출자들도 '고무줄' 가산금리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유도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CD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을 때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CD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을 때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CD가 은행권 전체 조달자금의 10~20%에 불과한데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의뢰를 받은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내년 초 바스켓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CD 및 은행채 연동 대출상품도 계속 판매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친환경 점토 파벽돌 '바람'

실내 인테리어 소재 인기

㈜봉황C1 日 등에 수출

벽면 인테리어에 파벽돌〈사진〉 바람이 있고 있다.

㈜봉황C1(대표 채영기)은 3일"황토를 이용한 친환경 점토 파벽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뿐 아니라 일본·두바이 등 해외 수출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파벽돌은 모양과 전면에서 보는 크기는 일반 벽돌과 같지만 두께가 5분의 1에 불과해 최근 실내 인테리어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봉황이 제작·판매중인 친환경 점토 파벽돌은 모두 9개 종류. 출시 직후부터 친환경 소재인데다, 자연 그대로의 돌의 질감과 형태를 살리면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줘 가을·겨울철 주거 인테리어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웰빙'소재인 황토와 점토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도 특징이다. 냄새 제거를 비롯, 습도 조절 기능이나 새집증후군 해소에도 일반 시멘트 벽돌에 비해 월등하다는 게 봉황측 설명이다.

봉황측은 "최근에는 아이들 공부방이나 상점·카페, 주택·펜션, 어린이집, 병원·학교 등에서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362-900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선택제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갖가지 선택요금제가 존재하는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화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후생이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투자심리 위축 등 조정장세 거래량 회복 확인후 매매를

미국 증시를 비롯한 증시 외부 변수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미국 증시가 보여준 큰 폭의 등락은 국내시장 투자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 금주는 해외에서 예정돼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많지 않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금주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는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이후로 기준금리를 2.0%에서 동결하고 있지만, 매달 금통위 때마다 뒤바뀌는 코멘트의 내용이나 수시로 돌출되는 긴축 관련 발언들로 인해 시장은 금통위 변수를 불확실성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지난주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과는 다른 양상인 셈이다. 금통위에서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주식시장도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주 코스피시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4조원에 못미치는 흐름이 나흘 연속 지속되면서 거래규모가 연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급락 이후 나타나는 거래대금의 급감은 시장의 반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관망세의 확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연중 바닥수준까지 떨어진 거래는 불안 심리에 따른 급매물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지수의 지지력 확보에 긍정적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거래바닥 이후에 지수반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권역이 가까워지고 있음도 시사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증시의 체력회복, 즉 거래규모의 증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다.

따라서 금주 국내증시는 코스피 1,500선 중반에서의 지지력 형성이라는 큰 틀이 유지되겠지만 등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평균적으로 하루 천억원 안팎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만큼 최근 매도강도가 크게 낮아진 투신권의 동향 및 본격적으로 저가매수에 나서고 있는 연기금의 움직임을 통한 지지력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적 대응을 권한다. 다만 본격적인 저가매수 대응은 반드시 거래량 회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